

가정예배 · 구역예배

2

2009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시편 · 요한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2

2009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시편 · 요한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 ①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이 되게 하소서.
-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 ③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뜻(빌 2:2)이 되어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워지게 하소서.
- ④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주님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일꾼이 양성(딤후 4:6)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딤후 1: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⑥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행 1:8)에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벧전 2:9)가 되게 하소서.
- ⑦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시고 예루살렘 찬양대(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⑧ 충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납골시설 건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 ⑨ 2009년 제1차 청지기훈련(2월 20일)에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여 복음으로 거듭나는 은총을 부어 주소서.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한 강도의 구원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평생 악한 일만 하다가 처벌받은 그에게 내려진 은총은

십자가에 담겨진 측량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시어 대신 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오직 '사랑과 은총'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며 무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과 은총의 십자가를...

그럴수록 사랑과 은총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2000년을 넘어 오늘날 우리를 덮기에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2009년 2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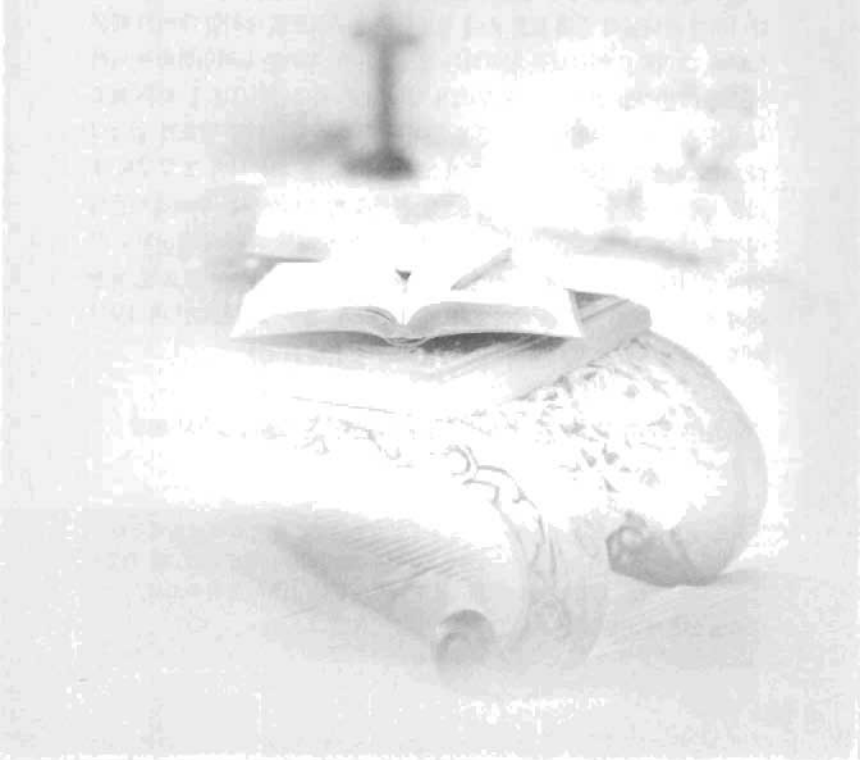
찬송을 부르고, 성경본문을 봉독

가정예배

(매일성경묵상)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삶에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난, 특히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유일한 도움과 보호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1절). 시인은 하나님과 환난을 대조시킵니다. 물론 시인의 강조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피난처”라는 표현은 위협에 처한 인간이 안전을 위하여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로, 소극적인 도움입니다. 하지만 “힘”은 위협에 처한 인간이 그 위협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능력으로, 적극적인 도움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도움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환난 중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용기와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3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롬 8:31).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패로,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1~2).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계 14:12).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시 46:1)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영원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우주와 역사의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손뼉 치며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백은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9절).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속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성취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보혈은 죄로 인하여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켰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의 사이의 담을 헐어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박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엡 2:14~15).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엡 2:14~15). 하나님의 백성은 혈연이나 국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길이 열렸습니다. 은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백은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시 47:9)

기도 제목 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가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성을 찬양합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의 처소이기에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시인은 시온을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1절), '큰 왕의 성' (2절),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 (2절)으로 찬양합니다. 이같은 표현은 그 산과 그 성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세상 다른 곳보다 높고 아름답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값비싼 대리석과 휘황찬란한 치장이 아닌 초라한 초막이라 할지라도 거룩하고 높고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질그릇에 불과하여도 그 내용물이 귀하면 그것으로 인해 귀하게 여겨지는 것과 같습니다(고후 4:7).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가 의롭거나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롬 8:10).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영원한 큰 왕의 성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영원한 큰 왕의 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14절).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과 함께 좁은 십자가의 길을 은혜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시 48:2)

기도 제목 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마음과 한 뜻(빌 2:2)이 되어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인간의 권세와 부를 죽음과 영원의 관점으로 보며 영원하지 못한 부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경고합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한다고 해도 결코 자신의 생명 문제에 관해서는 작은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죽음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6~7절). 이 말씀은 부유함으로 자랑하는 자는 그 풍부함으로 다른 형제를 구속하는 선을 베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풍부함으로는 결코 형제의 생명을 구원할 수도 없음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딤후 6:10). 재물이 영원하리라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순간에 모든 재물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찾으시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소용도 없게 됩니다(눅 12:16~21).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헛된 재물을 쌓는데 애쓰지 말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고 하셨습니다(마 19:21).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막 8:36~37). 재물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속전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줄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값진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만 좇아가십시오.

“존귀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시 49:20)

- 기도 제목** ①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주님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일꾼이 양성(딤후 4:6)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없이 형식만 갖춘 예배, 즉 내면적 준비 없이 외적인 제물로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과 교훈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22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형식적인 제사에만 마음을 쏟고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소홀히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망각한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속에 거하고 있는지, 말씀을 마음 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거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요 8:37).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거해야 합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만 좋아할 뿐 정작 그 은혜를 주신 분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배와 기도 등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바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하며 참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 50:23)

기도 제목 ① 예배드릴 때 말씀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하소서.
② 1·1·1 전도(딤후 1: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본문/시편 51편 찬송가/274장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자신이 범한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며 주의 구원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큰 축복을 받았던 다윗도 원래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악을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들은 후 죄과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난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을 구합니다. 가슴을 치는 기도이며 회개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공로를 읊조리는 것은 참된 기도일 수 없습니다(눅 18:12). 죄의 고백 없이 자신의 필요만 아뢰는 것은 이기적인 정욕을 충족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바울의 고백과 일치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롬 7:18). 그렇다면 근본적인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롬 7:25).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시 51:17)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늘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하소서. ②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행 1:8)에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벧전 2:9)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자신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또한 뿌리 뽑힌 나무와 푸른 감람나무의 대조를 통해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인이 완전한 파멸을 맞게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되 자라 하리로다”(7절). 악인이 의지하는 것은 풍부한 재물과 자신들의 악한 죄입니다. 악인들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는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권위를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멸망의 사기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속에서도 진정으로 자랑하며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공홀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공홀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엡 2:4~5)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며 재물과 자신들의 악한 죄를 자랑함으로써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증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시 52:8)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새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의 종말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삶이 참 지혜임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며 그 어리석음의 결과는 부패하고 가증스러운 악으로 드러나며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자들밖에 없음을 한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자신을 찾는 자를 찾기 위해 감찰하셨지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본질상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기준에 비교하면 우리의 선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롬 3:10~12), 중국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는 멸망이라면 이 절망적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죄악을 벗어버리도록 해주십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이루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된 지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시 53:1)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소서. ② 각 교회학교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천국일꾼들이 양성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십 광야에 숨어있던 중 그곳 거민의 밑고로 목숨이 위태합니다(삼상 23장). 포악한 자들이 다윗의 생명을 찾고 있을 때(3절) 다윗은 하나님께 생명을 의탁하며 원수를 멸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불신자들의 불의한 행위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귀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이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2절).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사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묵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7절)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내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때를 따라 주시는 주의 은혜로 갈한 심령이 힘을 얻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고후 1:10). 세상의 악한 영들은 부, 명예 그리고 권력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대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돌보심에 맡기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시 54:4)

기도 제목 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나아와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본문/시편 55편 찬송가/384장

다윗이 노년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과 그의 측근 아히도벨에게 배신당하여 쫓겨 도망하는(삼하 15장) 치욕스러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 영혼의 고백입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가장 큰 신앙의 적일 수 있습니다(11~13절). 나의 아내나 남편, 부모나 자식, 형제나 자매, 가까운 친지나 이웃, 친구나 직장동료가 나의 신앙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깝기에, 내가 사랑하고 또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에 영적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을 통한 사탄의 꾀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같은 일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가, 남편과 아내가 싸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막 13:12). 다윗은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16절). 그러나 우리 주위에 끝까지 변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19절).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를 의지하고(23절) 우리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22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22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원수 바귀의 모략과 권세를 이겨야 하겠습니다(마 10:21). 우리의 가정이 영의 눈을 떠서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시 55:22)

기도 제목 ①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② 충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납골시설 건립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사울을 피해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던 블레셋으로 다윗이 망명했습니다(삼상 27장, 29장). 다윗의 고초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면초가의 절박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여호와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앙이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의지의 결단이기에 어떤 장애도 능히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4,11절)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자신을 해할 수 없음을,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한 그의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유리(流離)함을 주께서 계수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8절). 이는 하나님의 약속있는 말씀이기에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주의 길을 따르는 자들의 고난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사 마지막 날에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히 13:6). 이같은 고백이 오늘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시 56:11)

기도 제목 ①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교회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블레셋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 그 곳을 탈출한 후 아둘람 동굴이나 엔게디 동굴에서 숨어 지내던 때입니다(삼상 22~24장).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과 아울러 환경의 압박을 초월하여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며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훨씬 높습니다(사 55:8~9). 그래서 나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못 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과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5,11절) 하나님을 믿는 고로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확신하며 나아갔던 다윗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시 57:7).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비록 육체는 구속(拘束)함을 받으나 영혼은 자유함을 얻으며 종국에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시 57:11)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이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권세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잊은 채 오직 이 세상의 정욕에 눈이 멀어 권세를 남용하는 악한 통치자들을 절대자 하나님께 고발하는 다윗의 시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범죄하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술사(術士)의 피리소리에 꿈쩍도 않는 '귀머거리 독사'처럼 결코 그 말씀에 귀기울이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악인의 모습은 아닙니까?(5절) 하나님은 거룩하시어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불의를 용납치 않으십니다. 반면에 의인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값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 말씀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현실입니다. 주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술사의 피리소리에도 꿈쩍 않는 '귀머거리 독사'처럼 결코 그 말씀에 귀기울이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악인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께 나오길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값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시 58:11)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앞에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금요 찬양집회의 찬양과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은혜의 단비로 채우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나뭇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도망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갔습니다(삼상 1:9).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죄에서 비롯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3~4절). 이 말은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무죄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의 원인이 자신의 잘못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혼재하는 이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성도들은 악인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며, 산성이시며, 방패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17절).

"밤"은 자주 환난과 위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밤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지혜를 경험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분의 완전하신 능력과 풍성한 자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은 불완전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절대공의의 실현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 세상에 횡행하는 악과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근거한 종말론적 절대공의의 실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경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시기에 그분을 통하여 나아갑시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시 59:16)

기도 제목 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시험의 때를 잘 견디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에 모든 남전도회원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에돔과의 전투에서 일시적인 패배를 경험한 직후에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철저히 인식하고 진군에 앞서 승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4절 말씀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旗)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는 '지휘권'을 말합니다. 그렇게 지휘권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위하여 지휘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용하시며 그를 통하여 진리,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군사로, 용사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싸우게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삼상 17:47). 전쟁의 승패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11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는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시기 때문입니다(12절).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예수님을 좇을 때, 복음을 위하여 몸바쳐 싸울 때 주님께서 원수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의 그 날에 십자가 군병들은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개가를 부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다"(시 60:12)

기도 제목 ① 진리를 위해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뜻(빌 2:2)이 되어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돌아오며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인은 본 시에서 하나님을 '망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3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이십니까?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견고한 망대가 있다면 약한 사람이라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지만 견고한 망대가 없이 방치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보호받으려면 견고한 망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망대는 언제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망대여야 합니다. 주님은 가장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안전한 망대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쁘게 맞아주시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망대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하고 안전한 망대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부도 권력도 명예도 자량도 무너지는 망대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안전한 망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9:33).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견고하고 안전한 망대가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의 열린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때임을 기억하고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시 61:3)

기도 제목 ① 견고한 망대이신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소서. ② 제1차 청지기훈련에 출현의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은혜를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자신을 왕위에서 축출하려는 반역자들의 맹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동요치 않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권면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셀라)”(8절). 이는 조금만 어려움에 처해도 쉽게 좌절하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기에 급급한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본질상 유한한 사람에게 미련을 두지 말고 무한자요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기 때문입니다(3절). 우리는 잠잠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으로 좇아 나기 때문이며(5절), 권능도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11절).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은 결코 없습니다(행 4:1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구원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비워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토해야 합니다(8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이기에 오직 예수님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시 62:5)

기도 제목 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② 제1차 청지기훈련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비록 친아들에게 쫓겨나 모든 권세와 명예를 박탈당한 채 황폐한 땅에서 해매고 있지만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넘치는 위로와 승리의 확신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1절). 하나님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나의 구주시요 구원자이십니다.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던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자녀로 삼으셨으며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기에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자신의 손을 들어 경배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3~4절). 주의 인자하심은 풍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있습니까?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경배합니까?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물을 갈급해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주를 찾기에 갈급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1절).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 갈망하며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으니 언제나 함께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시 63:3)

기도 제목 ① 주님의 인자하심을 갈망하며 영원토록 주님만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② 제1차 청지기훈련을 준비하는 모든 종들의 심령에 보혈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의인에게 고난이 닥친다는 사실 때문에 고민하던 다윗이 악인의 종말론적 심판을 보면서 답을 찾았음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이는 선악 간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우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9절)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의인이 아니며 악인의 모습이 우리 속에 공존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 농기를 함께 의논합니다(5절).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교회를 염려한다고 하면서 죄악을 의논하고 서로 칭찬해 주며 격려하며 십자가를 벗어난 일을 의논합니다. 이러한 일은 사람 앞에서 숨길 수 있을지 모르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죄악을 꾸미는 각 사람의 속 뜻과 마음이 깊도다(6절)는 그들의 지혜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에 대해 깊이 밀착되어 있음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나타내므로 회개할 때에만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깨달으며 인도하심을 받을 때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자만이 즐거워합니다(10절). 이런 은총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증언합니다. 악한 목적으로 격려하며 의논하는 모임을 피하기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더 깊이 깨달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증언자의 삶을 나누는 교제만이 우리의 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시 64:9)

기도 제목 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제1차 청지기훈련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4가지 관계를 보여 줍니다. 겸손함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1~5절). 거룩함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입니다(6~11절). 행복함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입니다(12~17절). 위선은 예수님과 가롯 유다의 관계입니다(18~35절). 요한은 이 장에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수님과 그의 대화를 기록한 후, 14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고별설교가 전개되고, 18장부터 20장까지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에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을 강조하며,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사역을 예비합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며,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주제를 붙잡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종의 모습과 죄를 씻어 주시는 십자가의 사역(8절)을 예표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 준다면서 인간관계의 사랑을 강조하고 미화시켜, 죄를 씻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흐려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발을 씻어 주며(14절) 사랑하는 것(34절)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속죄 받은 자들은 이미 묵욕함으로(10절) 온 몸이 깨끗해진 것입니다(요 15:3). 그러나 구원받은 자도 매일 세상과 접촉하여 허물과 죄로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아야 하므로 매순간 발을 씻듯이 회개함으로 죄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발을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은총을 간구하는 회개가 있기 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 13:1)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지체가 되게 하소서. ② 청지기훈련 시 말씀을 선포하시는 위임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사 복음의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아버지를 아는 것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심을 뜻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포함하는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아버지”는 2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보는 것이 아버지를 알고 보는 것입니다(7절).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20절)의 관계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며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기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6절)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며 이것을 믿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15, 21절)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보내 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의지할 때(16, 26절)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덧입어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요 14:7)

기도 제목 ① 구원의 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충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과거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현재의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미래의 포도나무는 이방인인 우리들입니다. 아버지는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열매를 맺기 원하시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8절). 예수님께서서는 계속 아버지와 예수님과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이른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서는 계속 아버지와 예수님과와의 관계를 강조하시며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 곧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에 따른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며(9절), 서로 사랑하며(12,17절),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16절) 명하십니다.

세상은 진정한 신자들을 미워하며 박해합니다(18~20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신자들을 미워하는 무리 속에 속하게 됩니다. 참된 기쁨과 은총은 고난에 참여할 때 절실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십시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됩니다. 예수님을 아버지가 보내셨음을 증언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이며,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입니다(26~27절).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을 증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27절) 있지 못하였지만 성령을 힘입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있기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요 15:16)

기도 제목 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안에 머물며 과실을 맺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② 보혈의 은총과 감사로 가득한 제1차 학습 및 세례식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두려움으로 떨며 근심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5절). 종교인들의 핍박(1~6절), 교회를 통하여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7~11절), 교회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12~15절), 기쁨을 주시는 원리와, 믿는 자에 대한 약속(16~28절), 믿는 자들이 취할 태도(29~33절)입니다.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4절)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은 뭔지 모를 두려움과 근심만 있습니다(6절). 그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고(7절),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투던 제자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17절)라고 서로 문의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며, 다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20~22절)고 힘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뜻 역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때를 당하면”의 뜻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때를 당하면 우리는 애통할 것입니다. 그 애통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은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참된 기쁨과 은총이며 기쁨은 십자가 고난에 참여할 때 절실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오시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심(28절)을 증언하는 삶을 살다가 그 때를 당하면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기도 제목 ①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②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 및 교회의 모든 사역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결론의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로서 그의 사역을 위한 기도이며, 그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의 삶을 나누는 주님의 기도입니다(1~5절). 우리는 그의 이름을 압니다(6~12절). 우리는 그의 말씀을 가졌습니다(13~19절). 우리는 그의 영광을 나눕니다(20~26절).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하여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 자신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이며(21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며(23절).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며(24절).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26절).

“아버지”의 이름이 이 장에서 40번이나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6, 11, 26절)은 우리를 보전하시며, 아버지의 말씀(6, 8, 14, 17절)을 가진 우리는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사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드렸습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고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증언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에게 어떠한 이름입니까? 예수님께서 증언하셨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 확신을 붙들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증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26)

기도 제목 ① 참된 중보이신 예수님을 매순간 의지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1절). 입맞춤(2~9절), 말고의 귀를 친 베드로의 같은 반향입니다(10절).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순종이며 행복입니다(11~14절). 베드로의 부인(15~27절), 빌라도에게 넘겨줌(28~32절), 빌라도의 심문(33~38절), 바라바(39~40절)의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 베드로는 칼로서 십자가를 막아보려 했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11절)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시는 모습입니다. 칼로 해결해 보려던 베드로는 곧 이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서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넘어졌듯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왕이십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36절)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나”(38절) 묻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답이며 믿음만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회개가 없을 때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입술로는 진리를 찾으면서 속에서는 바라바를 찾는 모습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속에 가득히 들어 있는 바라바를 내어 놓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함으로 진리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으리라 하신대”(요 18:37)

기도 제목 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소서. ② ‘재의 수요일’로 시작되는 사순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가 예수님에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안나스의 아들(18:13)에서 주님은 아랫사람에게 매를 맞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체찍질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십니다. 침뱀음과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을 당하시며 이 땅위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욕을 그리스도께서 당하고 계십니다. 가장 큰 범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유대인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노력(1~7절)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르는 무리들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만큼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17~27절). 제자들이 부서워 도망간 자리에 남은 자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25절).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십니다(28~30절). 예수님의 시체는 뼈가 하나도 썩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십니다(31~37절). 새 부덤에 예수님을 장사지냅니다(38~42절). 생명은 생명으로 해결해야 하기에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의를. 예수님이 쏟으신 물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함입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8~16절)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곁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가 필요합니다. 우리 곁에는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한 아리마대 요셉(38절)이 필요하며, 거듭남의 진리를 몰라 돌아갔지만 불약과 친향 섞은 것을 가져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니고데모(39절)가 필요합니다. 빌라도는 우리에게 “너는 어디로부터냐?”(9절)라고 질문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답을 찾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요 19:30)

기도 제목 ① 죄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소서. ② 모든 교사들이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어두웠던 믿음(1~2절), 희미한 믿음(3~10절), 빛나는 믿음(11~18절)입니다.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19~23절), 불신앙에서 확실함으로(24~29절), 죽음에서 생명으로(30~3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미명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열심이 여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만 찾는 어두운 믿음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열심이 어두운 믿음임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영적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희미한 믿음이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9절)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믿음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으로 의심하는 도마가 있어서 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 못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내가 불신앙이지만 확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받고 싶습니다(24~29절). 요한복음의 결론이 되는 도마의 고백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28절)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내 열심으로 무덤에서 시체를 찾아 해매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내시는 은총을 믿으며 이 일을 증언하기 원합니다. 어두운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시체만 찾기를 소원하여 부활의 새벽을 열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신 예수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19~21절) 명하신 예수님!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

기도 제목 ① 십자가를 통해 참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총을 온 세상에 증언하게 하소서. ②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요한복음의 부록으로 선교의 장입니다. 13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를 기록하고 14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고별설교가 있는 후, 18~19장에 예수님의 죽음, 20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합니다. 요한은 다시 이 장에서 베드로를 언급하며 사도행전에서 펼쳐질 베드로의 사역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20장). 그 이후 생전의 약속(마 26:32)대로 디베라(갈릴리) 호수에서 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1~2절).

주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시는지요! 늘 실수하던 베드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마 26:33)하며 “나”를 자신하던 베드로, 말고의 귀를 자르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주님이라는 말을 듣고...바다로 뛰어 내리더라”(7절). 그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며 놀라운 순교의 말씀이 내려집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합니다.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지금 여기 실패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는 예수님!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지만 베드로를 회복시킨 그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부르심에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일들을 증언하였던 제자들의 삶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요 2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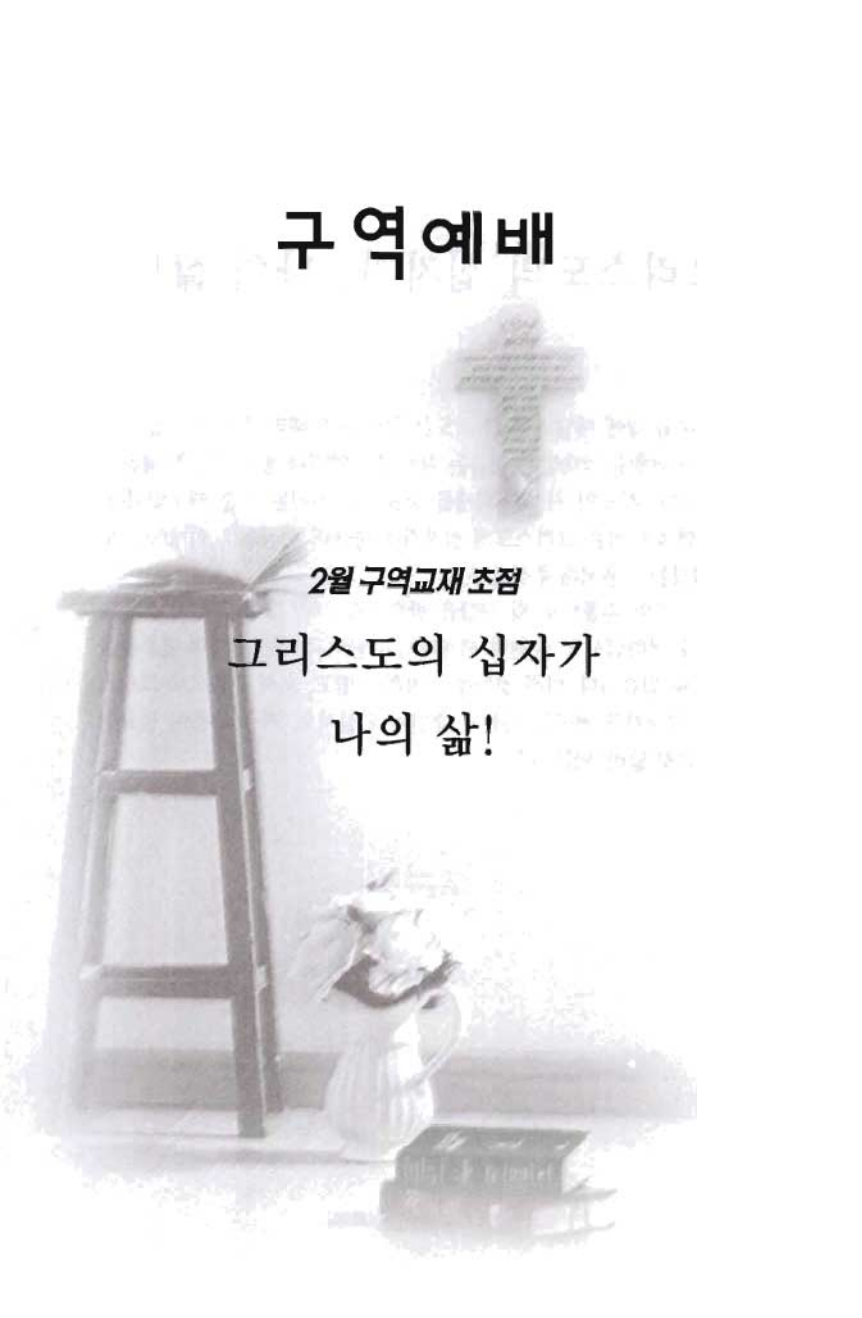
기도 제목 ① 회복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에 세움받은 일꾼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구역예배

2월 구역교재 초점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삶!

예수님 곁에 매달려 있던 강도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됩니다. 강도가 낙원을 약속받은 이유는 착하게 살았거나 종교적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강도의 진정한 회개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총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은총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은총의 증인이 되십시오. 지금 복음이 필요한 그곳으로 달려가십시오!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초 점
0130	눅 23:32~43	놀라운 회심자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자
0206	고전 9:22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0213	사 58:7~12	주고 받음의 은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상급을 받자
0220	요 4:46~53	아버지와 그의 아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와 은총의 종인이 되자

1.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결 론 및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소요시간 25분	소요시간 15분

1과 놀라운 회심자

| 초 점 |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자

| 찬 송 |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 본 문 | 누가복음 23:32~43

⁽³²⁾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³³⁾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 ⁽⁴²⁾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⁴³⁾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기독교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회심을 기록하였습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병든 자나 건강한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 등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 성경에 기록된 회심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_____

요한복음 9장 _____

사도행전 9장 _____

사도행전 10장 _____

※ 나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가장 극적인 회심은 아마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일 것입니다. 그가 회심한 이야기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회심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그의 회심을 그토록 놀랍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위임육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감도의 회개는 이미 예언되었다

이 놀라운 회심자는 놀람계도 예언의 일부였습니다.

눅 23:32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갔습니다(32절). 그들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가운데에, 두 행악자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달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 예언되었습니다.

사 53:8~9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구약성경의 많은 예언들을 성취하셨고 그 일부가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성취되어야 할 예언들이 남아있습니다.

※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대하는 신자의 태도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마 13:14

강도는 놀라운 기도를 드렸다

이 놀라운 회심자는 놀라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눅 23:40~41 / ...네가 동일한 □□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
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을 받는 것이니 이에 □□하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다른 강도가 악한 말로 예수님을 비방하자 그는 그 강도를 꾸짖었습
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강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께 간구했습니다.

눅 23:42

※ 강도가 예수님께 드린 기도가 '왜 놀라운지?' 나누어 보십시오.

강도는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아무
힘도 없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왕이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다른 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누
군가를 구원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은 믿음을 고백한 그 사람을 구원하셨고 변화시키셨습니다.

마 21:21~22

강도는 낙원을 약속받았다

이 놀라운 회심자는 놀라운 약속을 보장받았습니다.

눅 23:43 /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_____

이 강도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린 것도 자신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한 마땅한 대가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 예수님이 강도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약속을 하였고 그것은 이 강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 예수님은 강도에게 '오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 신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만이 죽음 후 즉시 천국을 보장해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눅 5:20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은 강도는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가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를 지었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고후 6:2

요일 2:18

예수님을 비방했던 강도처럼 겉모습이나 세상에서 어떻게 보이는지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그의 눈에는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순간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구세주,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속자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 간절한 기도 |

1. 매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회개의 삶이 되게 하소서
2. 영적 잠에서 깨어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소서

2과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 초 점 |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 찬 송 |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찬송가 501장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 본 문 | 고린도전서 9:22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
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
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참 신자였던 바울은 그의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자신의 자존심이 걸림돌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막 16:15

갈 6:14

예수님은 온 인류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지상명령에 대해 너무나 태만하거나 전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슬프게도 현대 교회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복음전도입니다.

※ 복음전도를 위해서 최근 일주일 간 한 일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눅 19:10

복음은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일급비밀입니다.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원한 멸망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요?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궁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궁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고전 9:22 / 악한 자들에게 내가 악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악한 자들을 얻고
자 함이요 _____ 아무쪼록 몇 사람이
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의 깊은 관심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 한 영혼을 궁홀히 여겨 힘든 상황에도 복음을 전했던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고후 11장). 이 새로운 회심자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행 20:24

십자가는 주님의 궁홀의 절정입니다. 궁홀은 두려움을 정복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소통은 복음전도의 중요한 열쇠이다

의사소통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입니다.

고전 9:22 / 악한 자들에게 내가 악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악한 자들을 얻고
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 몇 사람이
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람마다 전하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에
대해 부드럽게 전해야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만나는 사람이나 군중에 맞추어
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 복음전도의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경우(요 4장)

- 광야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의 경우(행 8장)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소통되도록 무한한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 인도하신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복음을 전할 때 보수해야 할 것과 유동적인 것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
시오

딤후 2:21

복음의 확신이 필요하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고전 9:22 /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
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_____
_____ 함이니

롬 11:14

바울은 결과를 기대했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
을 확신하십시오.

롬 8:28

※ 현재 태신자로 작정한 영혼을 향한 나의 기대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빌립보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은 바울을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
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고 하나님은 그가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행 16장).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신뢰해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극복하지 못할 환
경이나 상황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딤후 4:1~2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극한 고통속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벧전 1:9

히 10:39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십시오. 몇 사람이라도 좋으니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 간절한 기도 |

1. 나의 심령이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2.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내 안에 부어 주소서
3. 구역원들이 영혼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3과 주고 받음의 은총

| 초점 |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상급을 받자

| 찬송 |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 본문 | 이사야 58:7~12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㉞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㉟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㊱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인가?(사 58:6 ; 마 11:28~30)

※ 그리스도의 교회가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원한다면 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경 속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물질과 생명조차 아낌없이 내어 주었습니다.

※ 갈라디아서 2:20, 히브리서 11:36~40, 사도행전 4:32, 고린도후서 9:6~7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을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얼마나 받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린 자, 유리하는 자, 헐벗은 자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 58:7 /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_____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먼저 주면 은총은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고후 8:9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_____ 그의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하게 하려 하심이라

※ '누구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항상 주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사람들도 우리에게 똑같이 행할 것입니다. 베풀기를 시작하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 58:10~11 /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
□하게 하면 네 □이 □□ 중에서 떠올라 네 □□이 □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하게 하며
네 뼈를 □□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
는 □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십
니다. 주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눅 6:38

잠 19:17

주는 것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지 않으면 수확도
없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특
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행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할 수 있는 대
로 주십시오.

※ 나눔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와 기쁨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갈 6:7~8

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급이 있다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사 58:12 /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대를 □□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의 원칙은 변함없으며 도전적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갈 6:9

마 16:25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드리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을 위해 물질이나 영적인 축복을 쌓아둔다면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영생보다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청종하고 자신의 것을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유 1:20

※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가장 큰 상급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은총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사 58:8~9 / 그리하면 네 빛이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명예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단 10:19

주고 받는 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는 것은 놀라운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믿음으로 주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상급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 간절한 기도 |

1.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2. 은총의 복음을 전하는 데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4과 아버지와 그의 아들

| 초점 |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와 은총의 증인이 되자

| 찬송 |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 본문 | 요한복음 4:46~53

⁴⁶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⁴⁷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⁴⁸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일곱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⁴⁹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본문말씀은 아들을 사랑하는 한 아버지가 자신의 병든 아들을 위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야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지체로운 사람은 자신의 아이에게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을 때 어디로 가야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 살다보면 누구나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무엇 또는 누구를 떠올리며 의지하십니까?

병든 아들을 둔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습니다. 당시 왕의 신하들은 부유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얼마든지 자신의 아들에게 최고의 의사와 치료, 약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20마일(약 32km)이나 되는 먼 길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요 4:46~47

※ 시편 31:24, 33:18~19, 예레미야 33:3 말씀의 핵심메시지를 요약해 보십시오.

왕의 신하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아들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진실하게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만나주십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자신의 무능력을 깨달았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들을 도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왕의 신하는 겸손하며 정직하게 간절한 심정으로 자신의 아이를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요 4:49 / 신하가 이르되 _____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세상의 직함과 권력과 재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의 지위, 부, 지식, 친구, 가족은 아들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아이를 살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만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 왕의 신하의 경우처럼 예수님께만 매달렸던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왕의 신하는 아들을 위해 먼 길을 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그에게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고칠 수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마 7:7~8

렘 29:13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요 4:50 / 예수께서 이르시되 _____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_____ 가더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믿음으로 출발했고 계속 믿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흥분된 마음으로 집을 향해 갔습니다. 그는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믿음의 행보였습니다.

※ 지난 주간 내가 남긴 믿음의 행보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의심을 없애야만 합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은 응답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간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했던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요 4:51~53

마 19:26 / 으로는 할 수 없으나 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

왕의 신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요 4:53 /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_____

왕의 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고스란히 전한 것처럼 우리도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히 7:25

마 5:15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은총의 자녀입니다. 은총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은 은총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눅 8:39

왕의 신하의 아들은 병이 나았고 그의 가족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아들과 그의 온 식구를 구원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지위와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약 5:15

딤후 4: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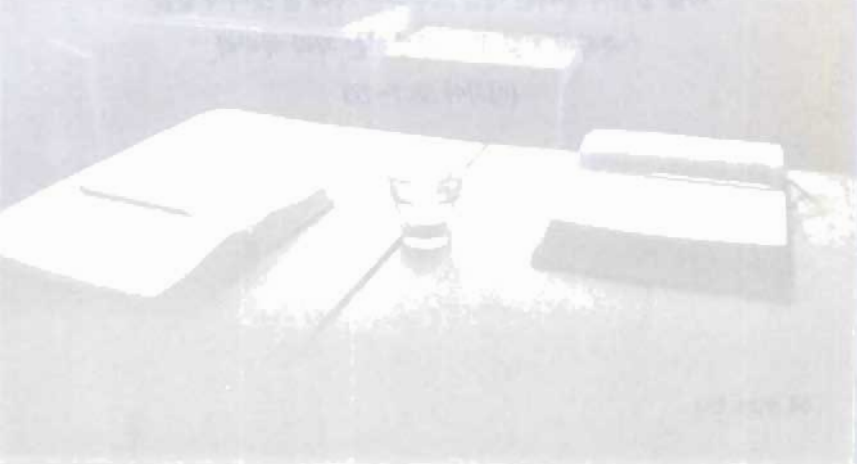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십시오.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와 은총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 간절한 기도 |

1.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치않는 믿음을 주소서
2. 믿음의 간구로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믿음의 길을 걷는 은총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주고 받음의 은총

⁽⁷⁾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⁸⁾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⁹⁾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 ⁽¹²⁾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사야 58:7~12)

오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크게” 외치고 계십니다(사 58:1).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겼던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홍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입니다(사 58:6).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 11:28~30). 그리스도의 교회는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속박에서 풀려나며 궁극적으로 죄로 인한 멸망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원한다면 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성경 속의 모든 영웅들, 즉 참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던져 순교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

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히 11:36~40).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내놓았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행 4:32). 바울은 주고 받는 하나님의 법을 역설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라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 9:6~7). 슬프게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얼마나 받는냐는 여러분이 얼마나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린 자, 유리하는 자, 헐벗은 자들에게 주라고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7절).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먼저 주면 은총은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8:9).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항상 주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이나 천국에서 비판 받고, 정죄 받고, 용서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베풀기를 시작하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10~11절).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눅 6:38). 주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잠언 19:17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주는 것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지 않으면 수확도 없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 6:7~8).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행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급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급을 약속해줍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12절). 하나님의 원칙은 분명하며 도전적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준 것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6:9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말씀은 여러분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들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 16:25). 여러분의 생명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을 위해 물질이나 영적인 축복을 쌓아둔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받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영생보다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청종하고 자신의 것을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주고 받는 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는 것은 놀라운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그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8~9절). 믿음으로 주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09년 2월 - Copyright© 2009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헌

집필진 | 양재웅 유재진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